

창 세 기

쑈 개 요

성경의 증언(막 12:26, 요 1:45)과 역사적 전통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이다.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가 기록하거나 편집했다고 한다면 출애굽 여정 중 광야에서 유리하던 40년 기간(BC 1446-1406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 하나님의 우주창조로 시작된다.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1)천지 창조 2)인간의 타락 3)바벨탑 사건 4)노아 때의 홍수 등이다. 창세기의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4대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에 관한 사적이 기록되고 있다. 성경의 모든 책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표상 곧 예표가 나타나 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롬 5:14)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도 한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창조자가 없다는 것과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창 1:26).

하나님의 천지창조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1)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2)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

터라
 19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안식일과 에덴동산

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에덴 동산의 위치 이야기(2:10-14)



아라비아 산 부근의 반호수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에덴에서 흐르던 강이 넷으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다(창 2:10-14). 그렇다면 에덴은 네 강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과 동일한 강이지만, 기혼 강과 비손 강은 그 위치를 알 길이 없다. 기혼 강과 비손 강을 아라비아 산에서 흘러내리는 지류로 보고 에덴 동산을 오늘 날 터키 동쪽에 있는 반 호수에 잠겼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최근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의 고고학 교수 주리스 자린스는 페르시아 만 지역의 위성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사막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으며, 비손 강이 페르시아 만 북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흘렀다고 했으며, 기혼 강은 이란으로 흘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페르시아 만 머리 쪽에서 위의 네 강이 하나로 만났으며 그 부근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시리아 역분에는 온 땅의 짐승과 2) 허, 생물

-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¹⁾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 곳에는 ²⁾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과 에덴동산 추방

- 3**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



▲ 아수르 앞의 히테겔(2:14) 강, 이라크

히테겔 강(2:14, 티그리스 강)

히브리 이름으로 히테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며 길이는 2000km이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에덴동산으로 흐르는 강들 중에서 두 강이다. 티그리스 강 쪽으로는 니느웨, 니므롯과 아수르 등의 도시가 발달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말로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2:17)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믿음의 언약이었다. 과일 하나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 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흠을 먹을지라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 이나라 하시고
-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¹⁾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들과 두루 도는 불 갈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인과 아벨

- 4**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²⁾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³⁾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

벌거벗은 느낌(3:10)

범죄자는 벌거벗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벗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뒤에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창 3:10). 의롭지 못한 사람, 즉 의의 옷을 벗어 버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벌거벗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창 3:11). 우리는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before God) 설 수 있다.

◀ 선악과를 따먹은 후 수치심에 덮고 있는 아담과 하와(3:10), 터키, 악다말교회, 벽부조



- 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¹⁾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

- 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²⁾ 낫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질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바였더라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과 창조신화

인류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고대 근동지방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다. 인류가 살고 있는 질서 있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먼저 여러 신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고, 신들의 투쟁의 결과로 우주의 질서가 생겼다는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쉬(Enu ma Elish)는 하늘을 지배하고 기후를 다스리는 폭풍의 신 마르둡(Marduk)이 바다의 용, 티아마트(Tiamat)를 물리치고 그 육체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 역시 하늘과 기후 등 천둥번개를 지배하는 제우스

와 그를 따르는 신들이 티탄들(거인들로 신적인 존재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뒤에 올림피아 산에 신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집트 신화는 태양신 아몬 라(Amon-Ra)를 창조의 신으로 보며 이집트 왕(바로)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아켄아텐 왕(Akhenaten, 왕비는 Nefertiti)은 태양의 빛을 신으로 섬겼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 등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다. 바벨론의 마르둡, 그리스의 제우스(Zeus), 이집트의 아몬-라(Amon-Ra) 등 신들 중에도(다음 페이지 계속)

1)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들로 나가자’가 있음 2)유리함

23라뱃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
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뱃의 아내들이
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
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진대 라뱃
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
였더라

25이답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
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
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 최초의 계보

5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
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
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
라 하였고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
녀들을 낳았으며

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계난을 낳았고

10 계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
녀들을 낳았으며

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12 계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
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벳을 낳았고

16 야벳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
녀를 낳았으며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18 야벳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
을 낳았으며

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
였더라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뱃을 낳았고

26 라뱃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28 라뱃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
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 라뱃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최고의 신이 있기는 했지만 다신교를 믿었으며 신들은
각기 지배하는 영역이 따로 있었다. 인간은 희생제물을
바쳐 신을 공경하는 부속물이나 노예 같은 존재에 불과
했으며 고대 그리스사람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뛰기까지 했다.

성경의 우주관과 창조 이야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홀로 창조자이심을(창 1:1) 가르친
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창 1:16)으로 신이 아니므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종
교적 행동을 일체 거부한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기

1)안위함

근이나 가뭄, 홍수, 태풍, 천둥번개 등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신들의 행동과 결부시켜 해석한 것과는 달
리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자라는 입장
에서 모든 자연현상을 해석한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체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주장
한다(창 2:1-3). 예수께서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
한 주시라'고 하셨다(막 12:29).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으로 지음 받아(창 1:27) 하나님과 사귀는 고귀한 존재
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이름을 짓고(창 2:19) 관
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창 2:15).

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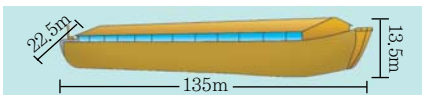
인간의 타락

6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는 1)네페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고펜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2)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방주의 크기(6:15-16)

방주는 축구장보다 큰 규모였다. 방주의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6:15). 1규빗은 약 45cm이기 때문에 방주의 길이를 미터법으로 고치면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였다. 따라서 방주의 길이는 타이타닉호의 절반 이상이었다. 참고로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64m였다.



▲ 해발 5165m의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 산(8:4)

1)장부가 2)히, 암마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방주

7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의 마침과 노아의 제사

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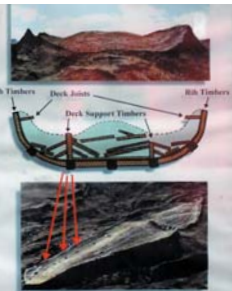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 방주가 머문 자리(8:4), 미국 우주인 어윈(James Irwin)이 발견한 것이다.

▶ 방주가 머문 자리를 연구한 도면(8:4), 터키 아라랏 산 박물관

오늘날 이곳은 이란과의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군부대 바로 근처에 있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 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진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졌더니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기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

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의 축복

9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 중 11번째 판(7:23), 대영 박물관

홍수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인간들이 만드는 소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신들이 홍수를 내렸다고 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홍수이야기와는 다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날로 회포해지는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다(창 6:5-7).

이방 신화들은 도덕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 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1)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 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 노아의 후손(대상 1:5-23)
- 10**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노아 자손들의 분포지역(창 10장)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손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벳의 일곱 아들들은 인도 유럽인(the Indo-Europeans)들로서 서쪽으로 토루스(Taurus)에서부터 가나안의 북쪽까지 그리스를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북쪽으로는 옛 소련의 코카수스 산맥(the Caucasus)까지 인구가 퍼졌다. 고멜(겔트족), 마곡(카스피해 동. 북에 거주), 마대(메대인), 아람(이오니아인), 두발, 메섹(흑해 동남에 거주), 디라스(게르만족) 등 야벳의 자손들은 레바논과 1)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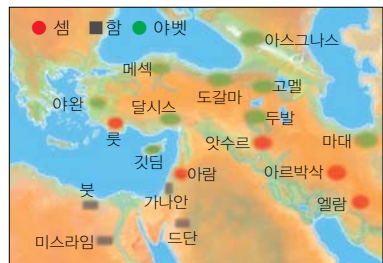


▲ 아라랏 산의 무지개(9:13)

- 이들을 낳았으니
 2 아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남이라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투힘과
 14 바드루침과 가슬루힘과 감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 스 족속과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룿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뱔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뱔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헛과 예라와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밤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지중해로 뻗은 땅을 차지하고 인도양(Indian Ocean)과 이집트와 그 건너편 땅을 점령하고 또한 니므롯과 연관되는 메소포타미아 일부 도시를 점령했다. 구스(아프리카), 미스라임(애굽), 붓(아프리카 홍해연안), 가나안(수리아의 팔레스틴 선주민) 등 함의 다섯 아들은 아프리카와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했다.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갈대아인), 룿(리디아인), 아람(아람족, 히브리인) 등 셈족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동쪽에 있는 지중해에 퍼져 있었다. 특별히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다.



▲ 노아의 후손(창 10장)

바벨탑과 셈의 후손

- 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셈의 후손(대상 1:24-27)
-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 11 아브라함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2 아브라함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 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 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 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 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 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 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삼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¹⁾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

바벨탑은 어떤 것인가?(11:1-9)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흙 벽돌을 구워서 장방형의 피라미드 형의 7층 건물을 만드는 습관이 있었으며 꼭대기에서 종교의식을 행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점하는 의식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스바냐 1:5).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뫾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며 니므롯이 만든 마르둑 신전을 바벨탑으로 보고 있다. 지구뫾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고대 바벨론의 마르둑(Marduk)신은 니므롯의 화성 숭배와 연관이 있으며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와 영웅숭배에 많은 영향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을 흠어 버리셨다. 바벨의 뜻은 '언어의 혼잡'을 뜻한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높은 탑을 건설해서 또다시 내릴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비하며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했다(유대인의 고대사 1권 4장 2절).



바벨탑 모형(11:1-9)

1) 히, 그의 출생지

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되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소명과 애굽 이주

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라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도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도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가나안 귀환과 롯과의 분리

- 13**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¹⁾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

소알의 위치(13:10)

소알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가까운 소돔의 동쪽에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소알은 구약 시대의 작은 성읍으로 그 산세는 사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 롯의 가족이 피난한 것으로 보인다. 소알은 사해 남쪽 서안에 위치한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이곳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때 잠시 피했던 작은 성읍이었다.



▲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의 소알 들 (13:10)

1)히, 형제들

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갈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룻의 구출과 멜기세덱의 축복

14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¹⁾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

왕들의 길(14:1-16)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을 구출해 왔다(창 14:1-16). 이때 동쪽(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네 왕이 사해 부근의 다섯 도시의 왕들을 침범하여 사로잡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던 이 길을 그 후 왕들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요르단에서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부른다.

1) 평지



▲ 왕들의 길을 표시한 기둥(14:1-16), 요르단, 느보산 박물관



▲ 왕들의 길에 위치한 쇼박성(14:1-16), 요르단

- 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벨기세텍에게 주었더라
-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꼴과 마프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햇불 언약

- 15**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단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르 지방의 전쟁 모습(STANDARD OF UR, 15:7), 우르 출토, 대영 박물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지방의 한 왕의 무덤에서 발견한 것으로 우르 지방의 전쟁모습을 자개로 수놓아 만든 BC 2,400년 경의 조각 작품이다. 한 편에는 전쟁, 한 편에는 전쟁에서 이긴 뒤에 파티를 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우르인들의 전쟁 모습을 보면 칼을 찬 병사들, 병거 마차에 실린 화살 통과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 말발굽 밑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보인다.

- 16네 지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 17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18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위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19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 20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 21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사래와 하갈

- 16**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2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3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1)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 4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5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입

- 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6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7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8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9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10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11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2)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12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 13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 14이러므로 그 샘을 3)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 15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



▲ 전쟁에서 이긴 후 족제와 전리품 행렬의 모습(Standard of Ur, 15:7)
우르 출토, 대영 박물관

만 뿔줄에는 수급 연주, 가수의 노래와 함께 축배를 드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줄에는 전리품으로 짐승과 생선을 운반하고 있고, 맨 밑줄에는 전리품을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다.

1)히, 아내 2)하나님이 들으심

3)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이라

마엘이라 하였더라
16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할례 언약 체결

17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
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
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
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¹⁾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
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
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
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
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
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
니와

14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²⁾
사라라 하라

16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
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
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이다

19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³⁾이
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
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
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
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할례에 대하여 (17:10)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요즈음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다. 중근동 지방 많은 나라에
는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신들에게 바치는 피의
제물로서, 또는 결혼준비로서, 또는 청결한 위생을 위해서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성경에는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란 말이 처음 나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증거를 삼으셨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는 하
남의 백성의 증표가 되었으며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창 21:4).

-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 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
 씌우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
 는 십삼 세였더라
 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

- 18**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
 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
 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
 읍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

- 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
 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
 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
 저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
 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
 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
 니라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
 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
 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
 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
 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
 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
 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
 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하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창 18:1)



◀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천사; 18:2), 마므레 상수리나무에서

-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

- 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 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니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니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니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니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의 멸망과 롯의 두 딸의 근친상간

19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마르레의 상수리나무 앞에 있는 아브라함 기념교회 (18:17)

무교병(bread of no yeast, 無酵餅, 19:3)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리킨다. 급히 만든 음식임을 알 수 있다. 히브리인들은 무교병을 유월절 예식이나 일상의 제사 헌물용으로 사용하였다.

상관하리라(19:5)

남자끼리의 동성에 행위를 의미한다. 남색(男色)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odomy'는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었던 소돔 사람들에게서 유래하였다. 한편 율법은 동성애를 수간(姦姦)과 동일한 중죄로 엄히 단죄했다(레 18:22, 20:13).

-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 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해매
- 있더라
-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

해매있더라(19:11)

개역한글판에서는 ‘곤비하였더라’고 번역했다. 이는 지칠대로 지쳐 더 이상 힘을 못쓸 정도가 되었음을 말한다. 곧 눈이 먼 상태에서 자신들의 동성에 대상을 찾느라고 광분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 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1)소알이라 불렀더라
-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었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었으시는데서 내보내셨더라
- 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

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 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 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의 그랄에서의 실수

- 20**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 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

모압과 암몬 족속(19:30-38)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친 롯이 산에 올라 굴에 거하면서 두 딸을 통해 낳은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에 거주했다. 롯이 거했던 동굴은 지금 요르단의 다이크 아인 아바타(Dayr Ayn Abata)이다. 이곳은 사해 동쪽 카락(Karak, 성경의 길하레셋)에서 63km 남쪽에 있다. 이곳 동굴 옆에는 비잔틴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옆에는 저수조도 남아 있다. 이곳에서 보면 사해 남쪽과 지금도 소알들의 비옥한 녹지를 볼 수 있다.

1)히, 그의 출생지



▲ 롯이 두 딸과 함께 거한 소알 산성의 롯 동굴(19:30)

- 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 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 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함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

- 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더라

이삭의 출생

- 2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블레셋 지역의 그랄(20:1)

그랄(Gerar)에 대한 장소는 텔 예메(Tell Jemmeh)와 텔 아부 후레이라(Tell Abu Hureira) 두 곳이 주장되고 있다. 전자는 가사 남쪽 13km 지점의 지중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며, 후자는 가사 남동쪽 17.6km 지점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일반적으로 이곳을 그랄로 보고 있다. 이곳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중기 청동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며 살았다. 이곳에 대한 발굴을 통해 중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었으며, 언덕 맨 꼭대기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곽이 발굴되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가뭄으로 인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그랄로 옮겨와 살았으며,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창 20:1-2, 15, 26:1, 8).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시므온 지파에 속한 몇 개의 종족이 그랄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다 왕 아사스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을 이곳까지 쫓아내었다(대하 14:13-14).

-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심었던 에셀나무(21:33)



하갈의 우물, 예로함(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보게 한 곳(21:19)

-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쩍이나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22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

하나님도 이방신들처럼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가?(22:9-12)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이 많았으며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았다. 암몬 족속의 신 몰록(밀골, 다곤)을 믿는 사람들이 한놈의 골짜기의 도벳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왕하 23:10).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했지,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양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는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자 하나님의 품은 손길이 나타나 양을 준비하는 모습(22:9-12)

- 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나니
-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 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나 하였더라
- 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더라

사라의 죽음과 장사

- 23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헛수와
-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브라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헛 족속에 게 말하여 이르되
-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 5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니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헛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 10 에브론이 헛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헛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이레(22:14)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이레'라고 하였다.

▲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22:13)

1)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 고대로부터 중요한 계약은 기록으로 보존했다. 아브라함과 헤브론의 헛 사람과의 막벨라굴 매매계약도 이러한 점토판에 새겨문자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3:18)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말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
을 굽히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
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
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
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
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
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
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
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이 헛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
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
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
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
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
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
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
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과 종의 언약

24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
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
에 네 손을 놓으라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
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
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
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
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
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
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
할지니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
니라

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
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

부족신관을 넘어 선 아브라함(24:3-7)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족 신을 믿었으며
산에는 산신, 강에는 강신이 있으며 신은 어떤 특정
한 장소에 매여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당시의 신들과는 달리 어디서나 존
재하며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 매
여 있는 부족신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
안 땅으로 이동한 것은 신관의 이해에도 상당한 의
미가 있다.

▶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
라함의 무덤(23:19) 헤브론
에 있는 막벨라 굴위에 세
워진 아브라함 사원 안에 있
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헛
족속에게서 샀다.



- 에게 맹세하였더라
-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 18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 19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 20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 22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 23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 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 25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짐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 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 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 29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 30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물을 걷는 일(24:16)

물이 귀한 근동지역에서는 물을 걷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물은 주로 가축부대를 이용해서 물을 길었으며, 두레박과 같은 기구를 하는 것으로 물을 길었다.

물을 걷는 일은 주로 여인이 하는 가사의 하나였고(창 24:11), 소년들도 다른 일들과 관련하여 물을 길었다(룻 2:9).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의 우물은 서로 공동으로 사용되었으며 그곳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



◀ 리브가가 물을 길으러 나왔던 밧단 아람 지역의 하란(24:11)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 때에 그가 우물이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1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짐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말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음식을 배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쭙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1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긴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7 내가 그에게 물기를 내가 뉘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

었다. 물이 넉넉하지 못한 도시에서 물길은 자는 나무를 때는 자들처럼 천한 계층의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신 29:11).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로 물길은 자로 삼았다(수 9:21). 성경에서 물을 길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잠 20:5)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교하여 비유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사 12:3). 특히 예수께서는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만족과 영생에 대해 우물을 은유로 말씀하셨다(요 4:13-15).



▲ 우물(24:11), 이스라엘, 네오토 케두임

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50 리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와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후처와 서자들

25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 은금 패물(24:53)



▲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 사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25:9)지냈듯이 유대인과 회교도들이 그곳을 양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를 주었고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르페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저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뫼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 두 지도자들이었더라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

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췌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성서시대의 무덤(25:9)



▲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25:9), 이스라엘 므깃도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을 사용했다.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은 도시나 촌락의 밖에 위치했다.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의 경우는 도시 안에 매장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굴 무덤은 대개 가족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막벨라굴에 매장되었고, 기드온(삿 8:32), 삼손(삿 16:31), 아사헬(삼하 2:32) 등도 부친 묘실에 장사되었다.

1)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①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복

26 아브라함 때에 첫 흥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흥년이 들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기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으로라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매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

우물에 대하여(26:18-22)

근동지역에서는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우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우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때때로 다툼이 일어났다(창 26:20-21).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으나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의 소유권으로 인해 다투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했고, 두번째 우물로도 다투자 싯나라고 불렀다. 그리고 세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투지 않자 르호봇이라 칭했다(창 26:19-22).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의 우물(26:33)

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땀던 우물들을 다시 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¹⁾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땀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²⁾ 시나라 하였으며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땀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³⁾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땀더라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

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34 예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와 야곱의 계약

27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26:24)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가 번성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삭을 통해 네 자손들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물로 바쳐진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자녀를 번성하게 하실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통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명령을 따라 아들을 바쳤으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케 하셨다.

1) 다툼 2) 대적함 3) 장소가 넓음

블레셋의 땅 그랄(26:1)

홍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 이로 보건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다가 브엘세바로 옮겨 갔다.

-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8 그러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

- 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 별미로 쓰인 유목민들의 염소(27:9)

장자의 축복(27:27-29)

아람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특별했다. 집안의 직통(嫡統)을 이을 상속자로서 다른 자녀들보다 축복의 우위에 있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약간의 시차로 장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시정했을 때, 자기의 팔죽과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기고 바꾸고 말았다(창 25:29-34). 이로 보건대 에서는 장자가 될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 이니라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떨 것이며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향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삭의 두 아들(27장)

이삭에게는 쌍둥이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후에 에서는 에돔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삭이 죽었을 때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묻혔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에돔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그 지역을 돌아가야만 했다.



▲ 풍성한 곡식(27:28)

- 43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야곱의 도피

28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8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



◀ 두 향단과 두 돌기둥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세라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8:18)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랫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돌을 지성소의 제단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으며, 개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산당에 세웠던 돌들을 볼 수 있다.



▲ 벨레에 남아있는 유적(28:19)

-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도다 이 곳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¹⁾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

29

-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 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 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 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나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 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 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 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



▶ 하란의 고대 우물(29:2)

1) 하나님의 집



▲ 야곱이 도망하여 도착한 하란의 오늘날 모습(29:1, 14)

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19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이라
 20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21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나이까
 26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

길지니라
 28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1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¹⁾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²⁾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³⁾레위라 하였으며
 35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⁴⁾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 자녀들의 출생

30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

결혼 지침금(29:20-21)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람 사람들이며 아람 사람들의 결혼 풍속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주는 지침금 제도가 있었다. 이 결혼 지침금은 신부측의 부모가 받아서 관리해 주는 돈이다. 만일 결혼한 딸에게 번고가 생겨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다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 지침금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왔다가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했다. 야곱은 지침금 대신에 레아와 라헬을 위해 7년

1)보라 아들이라 2)들으심 3)연합함 4)찬송함

을 봉사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딸들을 위해 봉사한 14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그 딸들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딸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담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31:14~16).

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
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
노라 하고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
지라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
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
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¹⁾
단이라 하였으며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
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²⁾납달리라
하였더라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
내로 삼게 하였더니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
을 ³⁾갓이라 하였으며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
게 낳으매
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
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⁴⁾아셀이라 하였더라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

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
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
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
하리라 하니라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
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
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
더라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
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⁵⁾잇사갈이라 하였
으며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
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
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⁶⁾스블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
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
므로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
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합환채, 이스라엘 식물원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합환채(30:14, mandrake)

합환채는 히브리어 두다이(두다임)로 다년생 초본이다. 합환채는 정식 명칭이 아닌 조어이다. 이 식물은 줄기가 없이 굵고 가지가 난 커다란 주근(뿌리)을 가지고 있으며 잎은 방사상으로 퍼져 있다. 꽃은 푸른색과 노백색으로 초겨울에 핀다. 봄에 맺는 열매는 맛있는 향기가 나며 먹을 수도 있으나 마약 성분이 있다. 또 구토제 역할도 한다. 뿌리는 그 생김새가 사람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고대에는 최음제 또는 임신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일부 미개인들은 최음제로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열매로 간주되는데 성적 효력이 있다하여 아라비아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다. 라헬은 임신을 위해 이 합환채 열매를 얻기 위해 언니에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했다(창 30:14-16).

- 24 그 이름을 ¹⁾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 28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흑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 35 그 날에 그가 솥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여 옅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리라



▲ 야곱이 양떼를 먹이던 산(30:36), 밭단 아람(하란)

1)터함



▲ 야곱이 양을 먹이던 곳에 세워진 수도원, 밭단 아람

43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귀향

3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족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 그 양 떼가 새끼 났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더라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드라빔(31:19)

아람 사람들은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근동사람들은 수호신은 가정의 출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수호신에는 개인 수호신, 가정 수호신, 도시나 국가의 수호신 등이 있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집의 가정 수호신(드라빔)을 훔쳐서 떠났다(창 31:19-20).



▲ 드라빔(31:19), 이스탄불 박물관

21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
니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
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
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
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
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
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
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
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
였으며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
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
도다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
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
질하였느냐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

하였음이니이다
32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
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
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
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
었더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
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
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
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
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
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
라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
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
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니까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되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
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
단하게 하소서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
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
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쪼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



▲ 드라빔(가정 수호신), 산르 우르파 박물관(벧단 아람 지역)

돌무더기(31:45-48, pile of rocks)

고대에 있어 돌무더기는 서로의 계약이나 약속의 증
표로 세워졌으며 기념을 하기 위해 돌을 쌓는 경
우도 있었으나 발을 개간하는 가운데 나오는 돌로 쌓
인 자연적인 돌무더기도 있었다. 보통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돌로 덮었는데 이
는 오늘날까지도 그 풍습이 일부 남아 있다.
아간은 범죄로 인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그
시체에는 돌무더기가 쌓였으며(수 7:26), 압살롬이
죽은 시체가 던져졌던 구덩이에도 돌무더기가 쌓였
다(삼하 18:17). 야곱과 라반은 언약의 증표로 돌무

- 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 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 44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저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 47 라반은 그것을 1)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2)갈르엠티라 불렀으니
-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엠티라 불렀으며
-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 50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

- 32**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

더기를 쌓았다(창 31:45-52).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성읍이나 집 혹은 제단이 돌무더기가 되리라는 말로 멸망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사 37:26, 렘 9:11).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아랍인 농부들처럼 이러한 돌무더기에는 악령이나 위험한 영웅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사 13: 21, 34:14). 본절에서 야곱은 삼촌인 라반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삼촌인 라반과 돌을 쌓았다(31:45-46). 참고로 사사 시대에는 기업 무를 일에 대한 계약의 증표로 신발을 벗어 주었다.



▲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하나임(32:2), 요르단

- 임이라 하였더라
-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찢아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북 나루를 건널새
-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압북 강(32:23)

압북 강은 압만 성채 부근에 있는 라스 알 아인(Ras al Ayn)에서 시작하여 마하나임, 브누엘, 사르단을 지나 요단 강과 합류하는 100km에 이르는 강이다. 압만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요단 강과 합류하는 초승달 모양으로 흐르는 강이다.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압북 강이 흐르는 브니엘이다(창 32:22-30). 브니엘은 압북 강 위에 두 언덕이 있는 투를 알 다합(Tulul al-Dhahab)으로 알려져 있다.



▲ 압북 강가의 양(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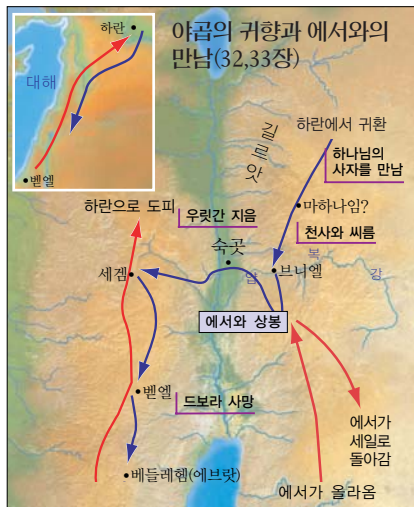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¹⁾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²⁾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대로 말미암아 절었다더라
-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과 에서의 상봉

33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이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이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 7 레이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아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예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아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 이 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아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1)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2)숙곳이라 부르더라

18 아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3)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4)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디나의 강간 사건

34 레아가 아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 하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그 마음이 깊이 아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 아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아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 아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아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8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3 아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 아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



▲ 아곱이 우릿간을 지은 숙곳(33:17)

기업(34:10)과 예물(34:12)

기업(possession, 基業)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가리킨다. 유형의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상권(商權)과 같은 무형의 재산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영적인 축복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예물은 개역성경에서는 빙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고대에 신랑측에서 신부를 얻기 위한 몸값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바치던 대가 또는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바치는 예물을 말한다.

1)히, 막 2)막들 3)히, 화제 단위인 4)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 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 15 그러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 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 18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 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 20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 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 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 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 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 26 갈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 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 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벤엘로 올라간 야곱

- 35**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

세겜(Shechem, 34:20)

세겜은 인명인 동시에 지명이다.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하물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며, 또한 세겜은 지명으로서 오랫동안 하물 자손이 살던 가나안지역의 땅이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 왔을 때 세겜 성읍에 있는 밧을 하물 자손들에게 사서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또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이 거기에 옮겨져 장사되기도 했으며(행 7:16),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장사했다(수 24:32).



▲ 세겜 (34:20)

- 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
 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¹⁾엘베
 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
 셨음이라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베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²⁾알론바웃이라 불렀더라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
 시고
 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
 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
 라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라 부르시고
 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
 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
 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4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
 을 베엘이라 불렀더라
 16 그들이 베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
 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
 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
 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
 느니라 하매
 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에 아들의 이름을 ³⁾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의 아버지는 그를 ⁴⁾벤아민이라 불렀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
 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텔 땅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화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스라엘)의 아들들(대상 2:1-2)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
 과 스블론이요



▲ 라헬의 무덤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 유대인(35:19)

라헬의 묘(35:20, Rachel's tomb)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사건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에 돌비석을 세웠는데, 야곱은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 그가 죽어 장사된 곳에 묘비를 세웠다. 묘비(무덤)의 위치는 사무엘 때까지 알려졌으나(삼상 10:2) 지금은 알 수 없고 다만 라헬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에 기념 건물이 세워졌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라헬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율법책을 읽는다.

1) 베엘의 하나님 2) 곡함의 상수리 3) 슬픔의 아들 4) 오른손의 아들

24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밋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야곱이 기랴아르바의 마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8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29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의 분가(대상 1:34-37)

36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웃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9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10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은 르우엘이며

11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담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13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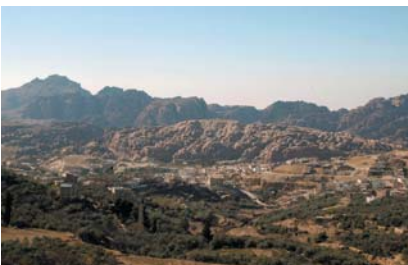
14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15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16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17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합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8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 에돔족속이 살았던 에돔산지(36:8), 요르단



▲ 광아에서 발견된 온천(36:24), 요르단 마인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19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세일의 자손(대상 1:38-41)

20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21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22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답나요

23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24시브온의 자녀는 아아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26디손의 자녀는 험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람이요

27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28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29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30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돔의 왕들(대상 1:43-54)

31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32브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33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4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윌이며

36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7삼라가 죽고 유브라테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9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40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답나 족장, 알와 족장, 여벳 족장,

41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밍살 족장,

43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요셉의 꿈과 이상

37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화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 에돔 땅(36:31)에 있는 장막 베드윈 텐트

-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는 꿈을 들으시오
-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측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 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 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 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 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 요셉에 대한 형들의 음모**
-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해변길(Via Maris, Way of the Sea, 37장)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나안의 지중해 해변과 도단의 서쪽을 지나 므깃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페니키아 해변을 넘어 다메섹을 향해 북동쪽으로 올라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이었다. 창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도단에서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던 길은 해안 상업도로인 동시에 군사도로였던 해변길이었다. 앗수르와 이집트와 히타이트(헷) 문서들을 보면 여행길은 사자를 비롯한 짐승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기후조건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Archaeological Study Bible, Zondervan, p. 143참조



▲ 그리심산 위에서 바라본 세겜의 오늘날 모습(37:14)

-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

- 소서 하매
- 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유다와 다말

- 38**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 2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 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 5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 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 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 10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 11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 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길르앗의 유향나무 (창37:25)

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담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담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담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 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곳 사람도 이르기를 저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23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29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²베레스라 불렀고

30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고대의 수혼법(38:8-10)

고대 중동 사회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우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는 수혼제(계대결혼제)가 있었다. 후에 이 제도는 모세의 법에 의해 확정되었다(신 25:5-10). 유다는 장자인 엘리 아들 없이 죽자 수혼제의 풍습에 따라 동생인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씨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오난은 낳을 자식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음을 알고 땅에 섧정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여겨 오난을 죽이셨다.

1)히, 크테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2)터뜨림



▲ 유다가 양털 깎는 자를 만난 담나(38:12)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애굽에서 종된 요셉

39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
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
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
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
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
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
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
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
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

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
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
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
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
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
라 하고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
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
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
이다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
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
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히브리 사람(39:14)과 관원장(40:2)

히브리 사람이란 호칭은 맨처음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에서 건너온 아브라함에게 붙여진(14:13) 이름으
로 '건너온 자' 라는 뜻의 에벨에서 유래했다(10:21).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할 때 이렇게 불렀
다(삼상 4:6). 성경 이외에서는 억압받으며, 유랑 생
활을 하던 소외 계층을 이렇게 불렀다.

관원장(officer, 官員長)은 '고자'(鼓子, '내사'(內
侍), '환관'(宦官) 등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일반적으
로는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고위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팔려가는 요셉을 연상시키는 대상들의 행렬(39:1). 아브다
에 있는 철로 만든 조각상,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
막을 왕래하던 대상들이었다.

- 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
 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을 해몽한 요셉

40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
 게 범죄한지라

-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
 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
 힌 지 여러 날이라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
 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
 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
 심의 빛이 있는지라
 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
 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
 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
 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 9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
 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
 도나무가 있는데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
 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
 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
 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
 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
 리게 되리이다
 14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
 뢰어 이 집에서 나를 전져 주소서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
 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
 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
 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
 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20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 고대 애굽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는 과정(40:11),
 이집트 민속촌



▲ 고대 애굽에서 빵을 굽는 모습(40:16), 이집트 민속촌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
 때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
 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바로의 꿈

4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
 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
 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
 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
 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
 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6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
 삭이 나오더니
 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
 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즉 꿈이라
 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
 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
 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
 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 술 말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
 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
 때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

14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
 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
 더라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만한 대
 답을 하시리이다
 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 가에 서서
 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9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
 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
 이라
 20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
 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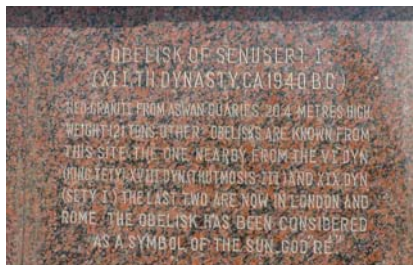
나일 강(41:3), 이집트 카이로

23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24그기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25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27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5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36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41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시슬을 목에 걸고
 43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얻더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이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페라의 딸 아스넛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 온 지역(41:45)



▲ 온 지역에 있는 오벨리스크의 받침대에 있는 설명(41:45)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티 그에게서 낳은지라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①므낱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 차남의 이름을 ②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매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

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

42 그 때에 야콥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 야콥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3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 야콥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

요셉 당시의 애굽(41장)

이집트 역사의 암흑기에 셈족 계통의 일부가 애굽(이집트)으로 내려와 정권을 잡아 약 100년간 애굽을 지배했는데(대략 BC 1650~1540년), 이 때를 애굽 역사에 있어 히소스 시대라고 한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오랑캐였다.

히소스(Hyksos)는 서북 셈족 계열에 속한 족속이다. 이들은 가나안인들을 섬겼는데 그 주(主)신은 바알(Baal)로서 애굽 통치를 계기로 애굽의 세트(Seth) 신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히소스 통치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 애굽의 곡식창고(41:56)

1)잊어버림 2)창성함

- 니이다
- 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 13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이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간하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 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 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 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 30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팔레스틴 지역의 기근(42:5)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다. 5-10 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전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은 비교적 많은 양의 이슬에 의해 겨우 수분을 공급받는다. 가뭄의 계절에 해당되는 이 여름 기간 동안에는 개천에 흐르는 물조차도 그 양이 적고 때로는 말라 땅은 갈라지고 만다(창 31:40). 그래서 목초지나 수목 지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불이 자주 일어난다(사 5:24).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해까지 기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다. 요셉 당시에는 이집트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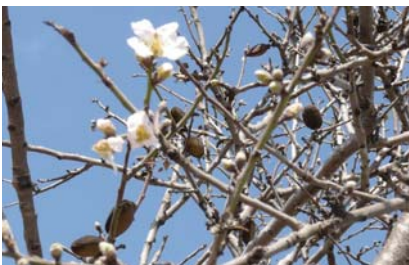


▲ 곡식 창고(Silo, 41:48), 이스라엘, 므깃도

- 31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 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 33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 34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 35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 36 그들의 아버지 야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 37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 38 야콥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두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들

- 43**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 2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 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 4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 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6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 7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 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 9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



▲ 아몬드가 달려있는 나무(43:11), 이스라엘



▲ 감복송아로 번역된 아몬드(43:11)

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지니라

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나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나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6 요셉은 베나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7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

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19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20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4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25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 유향나무와 열매(Pistachio, 43:11), 이스라엘



▲ 유향나무 열매로 알려진 피스타치오(43:11)

-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 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 있더라
- 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 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함

44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 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 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

- 들을 보내니라
- 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 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 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 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 9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 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 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 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 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애굽 사람의 히브리 사람에 대한 감정(43:32)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43:32),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따로 차렸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직업인 목축도 가증하게 여겼다(창 46:34).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



◀ 사람과 짐을 싣는 나귀(44:13)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

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던 유대인들이 성전시대에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가증하게 여겼으며,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다(요 18:28).



▲ 아람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44:7)는 이미 기저에는 쿠퍼 왕의 피라미드가 있었다.

-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 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 45**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지라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 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요셉의 역사관(45:5-8)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복형제들의 시기와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시련의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이복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라틴 교부로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44:7)는 이미 가자에는 �핑크스가 있었다.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나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죽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46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

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9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10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

신학자였던 아프리카 히포 레기우스(Hippo Regius, 현재 알제리 북동부에 있는 지중해 항구도시로 지금의 Annaba)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 AD 354년~430년)은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움직여 나간다는 목적론적인 역사철학을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요셉은 어거스틴 보다 약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 나간다는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 45장에서 알 수 있다.



▲ 브엘세바의 우물을 재구성한 모습(46:1)

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13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읍과 시므론이요

14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16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17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18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라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1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뭍뭍과 흠뭍과 아룟이니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삼 명이요

23 단의 아들 후십이요

24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25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 명이라

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떠느리들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



▲ 야곱의 가족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을 거한 고센의 비옥한 지역(46:34)

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
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바로를 축복한 야곱

47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
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
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
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
러하니이다 하고

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
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소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
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
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
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
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
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
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
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
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
하니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
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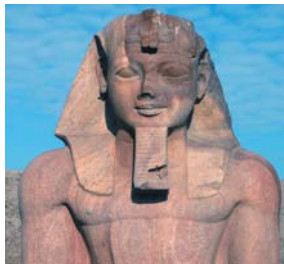
16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7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
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18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
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
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
오니 주께 빌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
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바로는 보통명사(47:1)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 왕의 칭호이다. 바로라는 칭호의 뜻은 위대한 집, 큰 집으로 왕궁을 의미했는데 이것이 왕 자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문서상 신왕국 때(BC 1550-1070년경)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고 고백하였다. 이 말은 요셉이 바로의 충성되고 신실한 조연자라는 뜻이다. 당시 바로의 모든 정책 수립은 요셉에게서 나왔으며, 실질적인 행정은 모두 요셉이 했다(41:40). 이런 점에서 요셉은 바로보다 위에 있는 자이며, 또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의 아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41:39).



▲ 애굽의 바로인 라암셋 2세 석상(47:1)

- 19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 20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 21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흠뻑으나
- 22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 23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 24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 25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 26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 27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

- 였더라
- 28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 29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 30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 31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질병과 요셉의 문병

- 48**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



▲ 곡식을 갈고 있다(47:14), 이집트 민속촌



▲ 애굽의 토지(47:20)

- 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 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 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여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엮었더라
-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

를 기르신 하나님,

-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 아람이 장사된 조상의 묘지(47:30) 막벨라 굴에 세워진 사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회교도들이며,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는 회교사원이 세워졌으나 2010년 현재로는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이 회교사원을 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관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1)세째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열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49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이다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7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도다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도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앉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도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땀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도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도다

13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때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도다

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전장한 나귀로다

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도다

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도다

17 단은 길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몰아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도다

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도다

20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도다

21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

고대인들은 600년 이상 살았을까?

1세기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역년(大歷年, the Great Year)은 600년이 한 주기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600년 이상 살지 않으면 별들의 주기를 예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문학적, 기하학적 발견을 위해서 하나 넘게서 고대인들을 장수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대인들의 환경이나 음식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적합했다고 한다. 요세푸스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애굽 역사를 기록한 마네토(Manetho), 갈대아의 기념비들(Chaldean Monuments)을 수집한 베로수스(Berosus), 모쿠스(Mochus)를 위시해서 헤시오드(Hesiod), 헬라니쿠스(Hellanicus), 에포루스(Ephorus), 니콜라우스(Nicolaus) 등이 다 고대인들은 1,00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요세푸스, 유대인의 고대사 1권 3장 9절).



▲ 야곱에 의해 축복 받은 스불론의 거주지인 시돈 해변(49:13)

1) 또는 한 몫을

지고 그를 쏘았으나

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 네 아버지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이다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이다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에 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과 요셉의 죽음

50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러 울며 입맞추고

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 병자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미라(50:2-3, Mummification)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에도 사람이 이집트와 유사한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사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묻었다. 이집트 초기의 미라는 사막에 묻힌 시체들이 뜨겁고 매마른 모래에 의해 수분이 증발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후에는 인공적으로 시체에서 수분을 빼고 소금의 일종인 나트론(natron)을 사용했다. 시체를 말린 다음에 천(linen)으로 싸서 관에 넣어 내세에 쓸 소유물들과 함께 무덤에 안치했다. BC 3000년경부터 인공적인 미라가 만들어졌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 불과한 가장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만 미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4세기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미라를 만드는 것은 사라졌다. 요셉은 의사에게 아버지의 시체를 향으로 처리하여 미라로 만들도록 요청했다(창 50:1-3).



미라(50:2-3)

1) 또는 열조에게로

-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 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¹⁾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 편이더라
-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르세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骸골을 메고 올라가겠대 하라 하였더라
-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신앙



요셉의 무덤, 이스라엘 세겜,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 장사되었지만 출애굽 때骸골을 가져와 세겜에 이장되었다(50:25).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 조상들(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러 살면서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다음 성경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한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애굽에서 죽어 애굽땅에 묻히나 훗날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자기 민족을 인도하여 낼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骸골을 애굽에서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했다.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에 장사했다. 오늘날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으로 전해오는 무덤이 있으나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파괴되었다.

1)애굽인의 곡한